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마태 4:19), "와서 보아라"(요한 1:39), "...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마태 11:29). 예수님의 마음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이 한 가지 '그를 따르라는 부르심'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줄기가 되시고, 심장이 되셨지만, 홀로 남겨졌다면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차원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줄 슈발리에도 동료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신학교 시절에, 그는 가장 열성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성심의 기사단', 즉 Chevaliers du Sacré-Coeur를 조직했다."(Jules Chevalier, A man with a mission. E.J. 커스켈리, 11쪽).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가 홀로 남겨졌다면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차원에 도달했을까요?

"오너라, '잘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충실히 전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잘 말씀하신'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상에 계신 하느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들을 위해 자비롭게 뛰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 어린 이들, 불의와 폭력의 모든 희생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할 것입니다"(회헌 22조), "성심이 사랑받는 모든 곳에서"(회헌 5조).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 "예수님의 피는 수천 개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땅에 물을 공급합니다. 어떤 것은 눈에 보이고 어떤 것은 숨겨져 있지만 모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 봉헌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봉헌합니다..."(SCJ 244).

"이 선택받은 이들의 세상에는 그것을 비추고 활기를 불어넣을 태양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비옥하게 할 바다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풍요롭게 할 보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SCJ 119).

"오너라,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너는 내 성심의 특권이다. 너는 그분의 슬픔, 그분의 굴욕, 그분의 고뇌, 그분의 고통, 아마도 그분의 걱정까지도 공유했다; 와서 그 안에 안식하고 그분이 담고 있는 기쁨을 맛보라"(M1 5).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리스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줄 슈발리에 신부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심 기사단'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절박한 소송의 변호사'이신 예

수성심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에게도 제안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마태 11:29).

오늘, 이 특별한 희년을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줄 슈발리에 신부의 생각이 우리의 사명 안에서 통합됩니다. 우리 진정한 사랑, 우리가 지구의 가장 먼 구석들에까지 마음의 영성을 전하는 그 사랑이 깃든 예수님의 마음, 육화하신 하느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가서 머무르며, 모든 사람에게 특히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예수성심이 그들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두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기도

주님,
슈발리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날 세상이
슬프고 낙담한 복음설교가들이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복음설교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기쁨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여
다른 무엇보다 첫째가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의 삶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복음의 사목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의 기쁨, 10항)

